

“뜻이 있으면 꿈★은 이루어진다”

■ 이선호 기자(w3master@energycenter.co.kr)

» 먼저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에너지절약촉진 대회에서 산자부장관상을 수상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을 대할 때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보편화성을 가진 자료로 ESCO사업에 참여한 결과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보다도 많은 업적을 세우신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상을 받게 되어 한편으로는 죄송한 감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 열심히 하라는 사명감을 주는 것 같아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다짐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 다년간 ESCO계에서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입문하셨고, 그 간의 중요 활동은 무엇이었는지요?

대학을 졸업하고 건축설비업계에 입문하여 설계, 시공 및 관리 등을 하게 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시설보수 유지관리와 사후관리의 에너지절감방법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이며, 꼭 그런 사업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사람은 병이 나면 병원을 찾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건물도 노후화되고 부식되면 고장이 나고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고장의 원인과 에너지절약방법을 모른다면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지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낭비를 가져올 것이고, 그 사실은 지금 조금씩 명백한 사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잘 할 줄 아는 기술자만이 진정한 기술자라고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다보니 ESCO업계와 인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제가 가장 관심을 기울인 부산대학교 냉난방설비 용역공사는 기존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최대한 이용한 에

너지절감사업임과 동시에 환경개선사업이었으며,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철저히 도모한 공사라 여겨집니다. 그 외에도 오리온전기와 LG마이크론의 수요관리진단 등 수 많은 사업장의 에너지진단 및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기술개발교류회 및 에너지관리공단 주최의 각종 세미나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사례발표를 한 바 있으며, 현재는 동명대학 겸임교수로서 에너지와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 ESCO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고 또 사업수행에 있어서 애로사항은 무엇이었는지 경험에 비추어 한 말씀 하여 주십시오.

ESCO사업에서 중요한 점은 자기 자신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을 중시하는 기술의 접목과 속달로 비전문가도 알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자료화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준비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직원간의 철저한 협의와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객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사업이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지며 업무의 범위를 더 넓혀 나갈 수 있습니다.

사업수행에 있어 애로사항이라면, 고객의 인식부족과 에너지절감을 하고자 하는 의지부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자료는 많이 제공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이 잘되지 않고 있으므로 협회나 공단에서 사례발표 등 에너지절감에 대한 기술홍보를 많이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ESCO업체에서 진단제안서를 제출할 때 용역비 수수료 항목을 만들어 공사를 하지 않더라도 용역비를 받을 수 있도록 견적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차후 ESCO 용역수행 제경비율 산정을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평소 도움을 주신 분들은 누구고 그 이유는? 또 한 이번 수상에 있어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ESCO사업에서 중요한 점은 자기 자신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을 중시하는 기술의 접목과 속달로 비전문가도 알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자료화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준비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직원간의 철저한 협의와 신뢰가 필요합니다.]

주식회사 세코에 근무할 때 사장님 이하 임직원들과 대학원 석사와 박사과정에 도움을 많이 주신 동아대 김사범 지도교수님, 권순석 교수님의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묵묵히 공직생활을 40년 넘게 하시고 정년퇴임 때 대통령표창을 받으신 아버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 최근 ESCO 등록기업인 에네코를 인수하게 된 동기와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가 경상남도에 위치하고 있으나 아직도 경남에는 ESCO사업의 개념을 알고 있는 고객 및 시행 회사가 많지 않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내년에는 에너지절감 관련 사업범위가 넓어져 적용대상을 확대할 수 있으므로 기술범위를 더 넓고 깊게 연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산업설비와 건축 설비 관련기업에서 시작했는데 주위의 많은 분들이 저를 주시하면서, 또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국가를 위해, 작게는 기업 및 개인의 편의를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나를 아는 사람들과 기술교류를 하면서 더불어 세상을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ESCO업계에 바라고 싶으신 바가 있다면? 또는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첫째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사업투자내역서의 간접비 부분을 표준화하여 견적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ESCO협회의 전문위원 활동을 적극 권장하여 각종 세미나 실시 등을 통해 제안서를 표준화하는 작업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셋째로는, 에너지진단 전문가과정의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기술적 지식 습득과 교류를 통해 신에너지 기술



최성암

최성암 에네코 대표는 '뜻이 있는 데 길이 있다'는 좌우명을 가지고 15년 이상 건축설비업계에서 일하면서 배운 지식의 결실에 보답한다는 생각으로 ESCO사업에 참여하여 오고 있다. 다. 공조냉동 및 건축설비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동명대학 겸임교수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송 대표는 ESCO사업을 통해 대체 에너지의 기술접목을 시도하는 등 ESCO사업의 영역을 넓혀나가는데 일조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창달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ESCO자금 조달부분을 협회에서 협조하여 보증서 방식으로 은행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ESCO업체의 자금인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섯째로, ESCO협회는 비가입회원들에게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협회의 활성화를 통해 ESCO 업계의 위상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에너지 진단에 의한 용역비를 현실성 있게 작성하여 고객이 많이 받아 볼 수 있도록 권장해 주었으면 합니다. ©